한국러시아문학회보

ВЕСТНИК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NEWSLETTER

발행일 2009년 5월 18일 발행처 한국러시아문학회 통권 제36호

권두언

안 병 팔

(부회장, 서경대학교 교수)

인구감소 재앙

小子化 高齡化. 일본의 출산율 감소와 70세 이상 노년층 증가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이런 현상을 우려하는 몇몇 우리 지자체에서도 인구감소를 재앙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라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학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새롭게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90년대의 폭발적인 팽창 이후 up-down이 반복되는 듯하지만 앞으로 전망도 그리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대학의 학부제, 시장수요를 고려한 구조조정 등 우리 학계의 대내외적 환경이 그렇다. 러시아라는 나라의 영향력이 러시아어 학습인구 규모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를 보면 러시아어 난이도에 관한 평판이 제 2외국어 선택 변수로서 중요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고등학생들도 수능 제2 외국어로서 아랍어가 어떤 언어보다 지원자가 많다고 한다. 대학생들은 실용적 이유에 의해서만 외국어로서 어떤 언어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언어 학습의 매력이나 교사의 교수능력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되고 있다.

우리 러시아어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저변을 확대하는 일은 지금 학회 차원에서 힘써야 할 일이다. 가급적이면 중고교와 대학에서 제 2외국어로서 러시아어 강의가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존에 러시아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러시아어 강좌를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수강생 감소 이유로 폐쇄하는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려워서 공부를 포기하거나 지레 겁을 먹고 선택조차 기피하는 일이 있다는 것도 되돌아 봐야 할 일이다. 작년에는 우리 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우수한 강의 노하우를 가진 연구자의 특강을 들었던 적이 있다. 이 분의 특강을 들으면서 저변확대는 사람하기 나름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는 학회 차원에서 러시아어가 배우기 쉬운 언어로 사람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방법과 교육내용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교수법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학회차원의 인센티브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졸립고 지겹다는 생각이 드는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떠나는 것을 뭐라 탓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새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가르칠 스타급 강사도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제2 외국어를 공부하고서도 러시아 문학작품 읽기나 웬만한 실용회화

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이런 방안을 연구하도록 우리 학회에서 뜻을 모아야 할 것 같다. 학진의 대형프로젝트로서 저변 확대를 위한 참신한 교수법 개발에 투자하는 것도 시급하지 않을까? 우리의 학문후속세대는 러시아어를 새롭게 공부하는 학생들 폭이 넓어야 더불어 생존하고 발전가능하다. TEACHING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마당에 이따금 주어지는 학진 연구지원만으로 학문후속세대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러시아어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 해주는 외국어로서 러시아교수법 발전이 우리 학계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 연차학술대회 소식

▷ 2009년 4월 4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5, 6 회의실에서 제 56차 정례학술발표대회가 열렸습니다. 문학 분과에서는 이승억 회원(경북대)이 <불가코프의 드라마에 나타난 안티유토피즘: 희곡 "극락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사회는 김규종 회원(경북대), 토론은 백승무 회원(서울대)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어학 분과에서는 정정원 회원(연세대)이 <러시아어 감정 술어의 의미와 통사적 결합가의 상관 관계>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사회는 김진규 회원(고려대), 토론은 이남경 회원(고려대)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문화 및 지역학 분과에서는 천호강 회원(부산외대)이 <1920년대 문학영역에서 불세비키의 정책>이라는 주제로, 정재원 회원(서울대)이 <세계화맥락에서의 러시아 노동이주>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사회에는 오원교 회원(한양대)이, 토론은 김수환회원(이화여대), 최우익 회원(국민대)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 학회지 발간

지난 2월 25일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30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제30집에는 변현태 회원(서울대)의 [악마에 홀린 자들: 러시아 초기 근대의 한 풍경]을 포함한 7편의 문학 논문과, 박혜옥 회원(상명대)의 [He를 포함한 러시아어 통사적 관용구]를 포함한 6편의 어학논문, 그리고 문화 분야 논문으로 이현숙 회원(한양대)의 [소비에트 러시아의 정체성과 여행시네마 - 지가 베르토프의 『지구의 1/6』 포함 1편등 총 14편의 논문이 실려있습니다.

* 도착 예정일이 경과했음에도 학회지를 수령하지 못하신 회원은 편집부로 연락주시면 재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학회비를 미납하여 학회지를 우송받지 못한 회원께서는 미납된 학회비를 납부하시고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지에 변동이 있는 회원께서도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총무간사 김정일 (jungil-kim@hanmail.net, 011-9714-5909)

공 지 사 항

▷ 제56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 개최 안내

제56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가 5월 30일(토)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학술회의실(214호)과, 세미나실(221호)이며,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입니다. 특히 이번 정례학술논문발표회는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20주년 학술대회를 겸하고 있어 더욱 뜻 깊은 행사입니다. 발표에는 윤영순 회원(경북대)이 <러시아/소비에트 고전의 재해석 – 소로킨의 경우>, 김규종 회원(경북대)이 <체호프 장막극에서 부차적인 인물의 구실>, 최진석 회원(서울대)이 <초기 바흐친의 사유에 나타난 무의식과 이질언어성의 동력학>, 이형숙 회원(충북대)이 <권력의 언어, 언어의 권력 – 자먀찐의 '말'>, 이문영회원(국민대)이 <러시아 노스탤지어: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의 과거 활용>, 변현태 회원(서울대)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재인식>, 최성호 회원(충북대)이 <굴절과 교착>, 김용화 회원(충북대)이 <18–19세기의 러시아 문학어의 규범화 및 문법서화에 대한 연구>의 제목으로 각각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 정례학술논문발표회에서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발표 예정일 30일 전까지 각 분과의 학술이사(백용식 문학분과 학술이사(straussrun@anmail.net), 김진규 어학분과 학술이사(scpark@suwon.ac.kr), 엄구호 역사·문화 분과 학술이사 (tassdk@chollian.net)에게 A4 1–2장 이내의 발표 요약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31집 심사 진행 중

2009년 6월 25일 발간예정인『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제31집에 게재할 논문이 현재 심사중입니다. 31집의 논문제출 마감일은 2009년 5월 5일이고, 조기 심사 마감일은 4월 5일이었습니다. 발간 후 회비를 납부한 회원님들께 발송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러시아어 어문학연구논집에 게재할 원고를 보내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 380–701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322번지 건국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심성보 교수**

연구실내 한국러시아문학회 편집부 rusistika@hanmail.net

▷ 회비 납부 현황

2009년 5월 18일 현재 학회비 납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내주신 회비는 엄격하고 꼼꼼하게 관리되어 학회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혹시 회비 납부를 하였으나 아래 명단에 누락된 경우에는 총무간사(김정일, jungil–kim@anmail.net)에게 연락 바랍니다.

△ 평생회비 완납(1997년–2009년 5월 18일 현재)

김경태, 김규종, 김선명, 김선안, 김세일, 김용화, 김정아, 김정일, 김진규, 김진영, 김철균, 김희숙, 문석우, 박종소, 박재만, 박현섭, 박형규, 박혜경, 박혜옥, 백용식, 변현태, 서상범, 석영중, 송인필, 심민자, 심성보, 안병용, 안병팔,

회원동정

오원교, 오종우, 유승만, 이강은, 이규환, 이기웅, 이기주, 이남경, 이대우, 이명현, 이영의, 이장욱, 이재혁, 이준형, 이항재, 이현숙, 이형숙, 전지용, 전명선, 정명자, 조미경, 조주관, 조유선, 조혜경, 최건영, 최병근, 최 선, 최종술, 최진희, 허승철, 홍대화, 홍지인, 한예경 (이상 61인)

△ 평생회비 부분납(2009년 5월 18일 현재

고영랑(10만원) 김혜란(10만원), 민경현(10만원), 심지은(15만원), 이득재(38만원), 윤새라(10만원), 서선정(10만원), 홍택규(15만원), 안지영(20만원), 이지연(15만원), 서선정(10만원) (이상 11인)

*** 현재의 명단은 2009년 5월 18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완납해 주시면 바로 평생회비 완납 명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 2009년 일반회비 납부현황 (2009.1.1 – 2009. 5.18)

개인회원: 전성희, 이경완, 우복남, 정하경, 최진석 (이상 5인)

단체회원: 연세대, 고려대,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한국외대, 안양대 (이상 5개 대학)

▷ 2009년도 회비 납부 안내

아직 2009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은 아래 계좌로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원 입회비는 2만원이며, 정회원의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생회비는 3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전임교원/ 5만원
△일반회원/ 3만원
△평생회비/ 비전임 30만원,
전임 50만원

* 입금하실 계좌 번호는 **우리은행 1006-901-280735 최성호(한국러시아문학회)** 입니다. 입금하실 때는 반드시 입금 내역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연회비, 홍길동평생회비)

* 지난 1월 16일, 러시아 문학의 이해(건국대학교 출판부)의 공동저자인 박형규, 문석우, 심성보, 이대우, 이득재, 이재혁, (고)이준형, 이항재, 정명자 회원님께서 인세 775,997원을 학회에 쾌척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지난 3월 1일 자로 윤새라 회원이 울산과학기술대학 기초과정부 조교수로 임용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교원임용, 학위취득, 결혼, 연구 활동을 위한 출국이나 귀국 등의 소식을 총무이사(straussrun@hanmail.net), 총무간사(jungil-kim@hanmail.net)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식은 물론, 주변 회원들의 소식도 좋습니다.

신입회원 소개

다음은 우리 학회의 새 식구가 되신 분들입니다(기존에 학회활동을 해오셨으나 새로이 가입하신 분들 포함). 입회를 환영하며 앞으로 활발한 연구와 학회 활동을 기대합니다.

△ 정하경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졸업, 2008년 하버드대학교 슬라브어문학과 박사학위논문: The Grammar of *Have* in a *Have*-less Language: Possession, Perfect, and Ergative in North Korean.

신간소개

(인터넷 교보문고 및 출판사 제공 서평을 올립니다)

▶ **저서**

【극동 러시아 리포트 – 극동 러시아 진출을 위한 현장 보고서】 전세표, 강승아. 산지니, 2009년 5월
이 책은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극동 지역을 한국 기자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는 책이다. 오늘날 극동 러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현실을 짚어보고 에너지 자원 개발, 건설, 농업 분야 등 우리나라와 극동 러시아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의 정체성 – 푸틴과 표트르 대제 그리고 러시아인의 의식구조】 기연수 지음. 살림, 2009년 4월
이 책으로 살림지식총서의 한반도를 둘러러싼 미·일·중·러 4개국의 정체성 탐구가 일단락되었다. 저자는 전문가 학자들은 물론 정책결정 담당자, 실무자들, 특히 일반 국민들까지 모두가 부담 없이 편하게 읽으면서 러시아를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하고자 노력했다.

【러시아 위대한 강대국 재현을 향한 여정】 기연수 외 지음.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9년 2월
이 책은 러시아 전문가 교수들이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각각 러시아연방의 문제를 포괄하여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러시아에 대한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이해는 물론 미래의 러시아가 어떠한 모습일지를 조망해보는데 크게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역사】 문명식 지음. 신아사, 2009년 4월

【표트르 대제 – 강력한 추진력으로 러시아를 일으키다】 박지배 지음. 살림, 2009년 3월
미국과 함께 20세기를 양분했던 소련. 냉전 이후 그 영향력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세계의 주요 강대국 중 하나인 러시아. 하지만 러시아는 오랜 시간 동안 농촌공동체 중심으로 소박한 삶을 살아가던 낙후된 국가였다. 이런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은 이가 바로 표트르 대제이다. 표트르 대제에 대한 입체적인 조망을 통해 오늘날 리더십에 대한 한 교훈을 찾는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민속과 사회 이야기】 김상현 지음. 민속원, 2009년 3월
민속 자료의 보고에서 '만들어진 전통'의 창조까지!; 소비에트 러시아 민속사의 흐름과 허위민속, 가짜 이야기, 정치 풍자의 변증법을 소개하는 이 책에서 독자들은 권력상징의

마스크와 허위 민속의 정치적 왜곡을 동시에 살필 수 있다.

【현대 러시아 문화연구 – 시민의식과 문화정체성】 강윤희 외 지음. 한울, 2009년 3월

이 책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연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9월부터 2년에 걸쳐 진행된 연구의 산물이다. “현대 러시아 문화정체성의 해제와 재구성”이라는 제목하에 진행된 이 연구는 오늘날 러시아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를 문화의 차원에서 고찰·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회화로 이끄는 실용 러시아어 작문】 남혜현 지음. 문예림, 2009년 3월

이 교재는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이 주고받는 편지를 주요 텍스트로 하고 있습니다. 텍스트의 내용은 등장인물 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사건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실제 러시아어로 이메일을 쓸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어 인터넷 검색, 이력서 쓰기 등은 러시아 관련 종사자들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생존 러시아어. 3: 러시아어 일촌 만들기】 안병팔, 박진환, 이수현 지음. 신아사, 2009년 3월

이 책은 우리 땅 에온 러시아 젊은이가 겪는 여러 가지 일과. 이를 옆에서 도와주는 한국청년과의 대화로 구성되어있다. 우리학생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말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이 책은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미래와 한반도】 고재남 외 지음. 한국학술정보, 2009년 1월

이 책은 우리 땅 에온 러시아 젊은이가 겪는 여러 가지 일과. 이를 옆에서 도와주는 한국청년과의 대화로 구성되어있다. 우리학생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말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이 책은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다.

【고대 러시아 문학사】 김문황 지음. 개신, 2009년 1월

기독교 문학을 근저로 하는 러시아 문학은 11~17세기의 고대 러시아 문학과 18세기 러시아 문학을 거쳐 19세기에 이르러 세계적인 문학으로 발돋움하였다. 19세기 러시아문학의 찬란한 광명 뒤편에 바로 어둠에 묻힌 고대 러시아 문학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며, 바로 이 책이 그 어둠을 밝히는 횃불처럼 독자들에게 고대 러시아 문학을 소개한다.

【러시아어로 작문하기 – 기본 실용문에서 논술까지】 안지영, G.A. 부드니코바 지음. 랭기지플러스, 2009년 1월

『러시아어로 작문하기』는 러시아어 기본 문법을 중심으로 해당 문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바르게 글쓰기를 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습 교재이다. 아무리 짧은 분량의 글일지라도 해당 주제에 맞는 적절한 문체로 바른 글을 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고대 러시아문학의 시학】 조주관 지음, 아카넷, 2009년 1월
근현대 러시아 작가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문학작품을 창조하였는데, 이는 고대(중세) 문학에 대한 깊은 지식이 침윤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옛것을 공부하면 새로운 것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확대 되는 것이기에, 고대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가 우선되어야, 러시아 문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미개척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고대 러시아 문학을 다루고 있으며,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대 러시아문학의 시학】 조주관 지음, 아카넷, 2009년 1월
근현대 러시아 작가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문학작품을 창조하였는데, 이는 고대(중세) 문학에 대한 깊은 지식이 침윤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옛것을 공부하면 새로운 것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확대 되는 것이기에, 고대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가 우선되어야, 러시아 문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미개척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고대 러시아 문학을 다루고 있으며,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홉가지 테마로 익히는 시사 러시아어 작문】 유학수 지음, 뿌쉬낀하우스, 2009년 1월
본 교재는 자주 접하게 되는 다양한 문형과 표현을 분류하고 있어, 쉽고 빠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유사 표현 뉘앙스 차이 등 고급 작문에 꼭 필요한 내용을 엄선한 해설과 각주가 수록되어 있어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 제시된 주제별 보충용어와 활용 빈도가 높은 다양한 표현을 통한 심화 학습을 할 수 있어 높은 학습 효과를 볼 수 있다.

【푸슈킨: 러시아 낭만주의를 읽는 열 가지 방법】 김진영 지음, 서울대 출판부, 2008년 12월
이 책은 낭만주의 시대라는 컨텍스트 안에서의 푸슈킨을 조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열 편의 수록 논문은 시인으로서의 역할, 창조론, 시와 산문의 역학 관계, 역사관, 오리엔탈리즘, 연애론, 연극성, 번역론, 규범과 반항, 운과 운명 등, 낭만주의 시대가 천착했던 삶과 문학의 주요 화두들에 있어 푸슈킨의 문제의식을 일관되게 정리해준다.

▶ 역서

【러시아 문어사】 뵈크, 플렉켄슈타인, 프라이당크 / 김영태 옮김. 선인, 2009년 5월 본 역서는 9세기경 교회 슬라브어가 생성되어 약 10세기가 흐르는 동안 러시아어와 대립 보완하면서 소비에트 시대까지 정치.사회·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현대 러시아 문어가 생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지하로부터의 수기】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조혜경 옮김. 웅진씽크빅, 2009년 1월

인간의 모순을 파헤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지하로부터의 수기』. 의식의 지하 세계에서 살아가는 냉소

	적인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수기 형식의 소설이다. 주인공은 자의식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그것에 대해 답한다. 앙드레 지드는 이 작품을 '도스토옙스키의 전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라고 말하기도 했다.	* 회원 여러분께서 출간하신 신간이 있으면 학회 홈페이지에 간략한 정보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관련 서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책도 좋습니다.

한 국 러 시 아 문 학 회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ИСТОВ

—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변현태 교수 연구실 내 (사무국)

Tel: (02) 880-9030 Fax: (02) 871-6128 학회 Home Page: www.russian.or.kr